

# 통합진보 '진상조사 특위' 구성

## 전국 운영위 '비례부정' 후속처리 논의 비당권과 '지도부 대체 비대위'는 무산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10일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하지만, 비당권과가 통과시키고자 했던 '현 지도부를 대체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처리는 당권파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운영위원 50명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실상의 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당권과를 통과시키고자 했던 '현 지도부를 대체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처리는 당권파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 진행 ▲책임자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여성 4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10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인사, 4명은 당내 인사를 선정하고 온라인으로 온라인 투표 범위로 위원을 나뉘어 활동을 계획했다.

특위 위원장은 공동대표단 합의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특위 위원들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차기 지도부 선출 이전까지며 특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위 승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자, 중앙선관위,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특위 구성에서 배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관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비당권과는 이어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당권과는 오히려 '총체적 부실선거'로 규정된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비례대표선거 진상조사 보고서의 폐기를 촉구하며 결사 저지했다. 새로 구성된 진상조사특위는 운영위 산하기구로 운영되며 ▲비례경선

한편, 이날 전국운영위원회는 애초 계획 예정시간인 오후 2시를 25분 넘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정실 수행 문제가 제기되자 이정희 공동대표가 자리를 잠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겨 가까스로 개최됐다. 당권과 측 참관원들이 퇴장하지 않고 구호를 외치거나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난장판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이에 앞서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대표단회의에서 회의장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당원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보기로 합의했다. 이정희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

사보고서는 부실한 것이 분명하

# 여야 원내대표 첫날부터 '기싸움'

이한구-박지원 상견례...논문표절·언론사 파업 신경전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상견례를 가졌으나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로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사차 찾아갔다.

이날 상견례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제1회 국회의 날 행사에 갔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조금 있으니 이인제 선진당 비대위원장이 왔다"며 "정당이 전부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운을 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왼쪽)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민주당은 다음달에 끝나죠"라고 응하자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야 아주 심플한 담이지만 우리는 복잡하다"며 "진짜로 이(이한구)-박(박지원) 연대를 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정말로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등 초반에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지금 논문 표절 의원들은 학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국회를 개원해서 윤리위원회를 늦추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한번 상정하고 4년 끌었지만 지금은 용납되는가"고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논문 표절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은 목포 출신인데 그곳은 흥어가 유명하다"며 "속성시키는 데는 귀신인데 정치도 속성시켜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공격을 피하면서 타협을 강

조한 것이다.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 두 사람은 언론사 파업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MBC 파업이 102일째이고 KBS·YTN·연합뉴스 등 방송언론이 총체적 문체 아니냐"며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든 본인이 관두든지 해서 새 사장을 선임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첫 번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MBC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다"면서 "불법·정치파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재오 대선출마 선언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으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0일 "가난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며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임기 3년 단속 및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 카드로 꺼내들었다.



한계 때문에 내용적·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성숙의 상태에 있다"면서 "지난 정권들이 저지른 과오와 모순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성숙한 내용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동에서 지지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곁잡한 '동북아 평화번영공동체'의 외교비전과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18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저는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오늘 광주 방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광주를 방문한다. 박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지난 3월 30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방문 이후 40여 일 만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광주 서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2층에서 열리는 '광주·전남지역 총선 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점검하

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엔 박 위원장을 포함한 진영 신임 정책위의장, 주영순 비례대표 당선자, 이학재 비서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곧바로 여수엑스포 전야제에 참석, 여수엑스포조직위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6·9전대일정 확정

### 대표·최고위원 경선

### 13~14일 후보 등록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6·9 전당대회의 구체적 주요 일정이 10일 확정됐다.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후보들은 13~14일 후보 등록

을 마쳐야 한다. 또 출마자가 많아 효율적인 경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1차 컷오프 경선을 오는 16일 실시한다. 방송 합동토론회는 17일 열리며 이후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후보들의 지역순회 정견발표 겸 시·도당 개편대회가 이어진다. 이어 최종 경선인 전당대회는 오는 6월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국회·당직도 '친박 싸늘이'?

### 국회의장·부의장·당 사무총장 등 인선 관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선출로 박근혜 친정체제가 강화됐다는 평가 속에서 국회직·당직 인선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당 안팎에선 5·15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지도부, 19대 국회의장·부의장, 당 사무총장이 친박계 또는 친박계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친박 싸늘이'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로 유력시되는 황우여 원내대표는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해오면서 친박에 가까워진 인사이다. 그가 당선된다면 당대표·원

내대표의 두 톱이 친박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전대 당선권에 있는 유기준·이혜훈 의원과 김태홍·정우택·홍문종 등 선진도 친박이거나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당대회와 끝나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원구성 협상에 들어 가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는 6선의 강창희 당선자가 물망에 올라 있는 가운데 정의화 현 국회의장 직무대행도 강한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6억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46)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홍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홍대학교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종 교비 66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 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교터)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02733-0220 송파점(세종대)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사민회관) 032421-29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백성소) 02001-아울렛점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역)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031376-4183 부천점(부천역) 032329-4400 남양주점(한미호수) 0708229-9903 부산점(부산역) 051818-8800 서안점(서안역) 051256-7200 울산점(울산역)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80 진주점(진주역) 055745-9870 대구 점(대구역) 053425-4440 상역점(상역역) 053426-1511 남일동점(남일동역)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054244-5110 안동점(안동역) 054859-2248 광주 광우점(광우역)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주역) 06322-5728 호남점(호남역) 063446-0198 익산점(익산역) 063638-5000 남원점(남원역) 063632-2626 대전 대덕점(대덕역) 042254-5110 대전점(충청도)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25-6900 충청 천안점(천안역) 041553-2988 광주점(광주역) 04188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043254-5110 대전점(대전역) 043222-1177-6 충청점(충청역) 04363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033647-0588 춘천점(춘천역)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064753-45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